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담양군,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담양식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담양군은 지난 14일 죽녹원 일과관에서 담양군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1년간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12개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간 소통, 주민복지, 환경개선, 공공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감 있는 주민자치 사례를 공유했다.

군은 발표된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동 홍보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와 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갈 예정이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며,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이다. 전라남도도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주민자치회가 더 널리 뿌리를 내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 주민자치회에 담양의 현재를 묻고, 담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읍면 주민자치회를 통해 담양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주민자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정영 기자

곡성군, 읍내 일원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 설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위한 거점 수거장 시범운영



곡성군은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이 어려운 읍내 주택 및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가운데 플라스틱·유리·스티로폼·종이류 등을 위생적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설물이다.

그동안 곡성읍에는 주택 및 상가 거주자가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 일반쓰레기와 함

께 배출하고 있었다. 이번 재활용품 거점수거장을 설치로 재활용 자원의 효과적인 배출로 위생적인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을 시범운영해보고 주민들의 효용도를 살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불법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군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및 깨끗한 청정아마지 곡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전체 경로당에 ‘말하는 소화기’ 설치

영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진동평, 민간위원장 이삼행)는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센터장이진식)과 영암소방서(서장 김기석)의 지정기탁으로 관내 경로당에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말하는 소화기’는 기존 소화기에 음성키트를 장착하여 버튼을 누르거나 소화기가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사용법이 음성으로 안내되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화재 시 초기진화가 가능하다.

또한, 영암소방서는 읍면협의체와 함께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 화재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에게 화재 및 일상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성료

총484명 참여...웰니스관광 새 지평 열어갈 것으로 기대



완도군이 운영하는 2018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웰니스 관광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5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양기후치유란 온화한 기후 속에 해풍을 맞으며 해양에어로졸을 흡입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여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가을과 겨울까지 프로그램을 12회 운영하였으며 총 48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관내 참가자 370명을 비롯해 타 지역 거주자 114명이 참여하였고 아르메니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여름과 가을바다는 요가, 패들보드, 아쿠아테크, 필라테스를 겨울에는 노르딕워킹, 다시마 해수찜 등 계절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만족감과 효과를 더했다.

특히 꽃차와 해초밥, 유자해초호떡

등 해양치유 음식을 시식하는 프로그램은 맛도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까지 든다며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매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95%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도 확대 운영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 참가자는 “바다는 여름철 피서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사계절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바꿔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보고 즐기기만 하는 관광과는 달리 해양치유는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즐기면서 심신(心身)을 치유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는 반응이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확신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바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여행 종합

관광안내센터 착공

총 20억원 투입...내년 7월 준공

진도군이 녹진에 진도여행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한다.

진도군은 17일 군 관공인 진도군 녹진리 일원에 진도여행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종합관광안내센터는 내년 대명솔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수용 태세를 구축하고자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장, 커피숍, 스낵코너, 편의점 등 관광안내와 편의 시설을 갖춰 건축면적 456㎡, 지상 1층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 투입된다.

이에 관광지를 찾은 여행객들은 센터에서 다양한 요구를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준공되면 진도군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 모집

여수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대학생 행정인턴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정인턴제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행정을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 상반기 겨울방학 때 처음 운영됐다.

지원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2월 10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여수시인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다. 대학

원생과 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재학생, 평생교육원생, 기 참여자 등은 제외다.

지원 시에는 우선선발(60명)과 일반선발(90명) 중 선택해야 한다. 우선선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국가유공자·다자녀(3명)가정 자녀, 여수시장 표창 수상자 등이다.

행정인턴으로 최종 선발되면,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주 5일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이며, 시급은 여수시 생활임금(91.90원)이 적용된다.

행정인턴 활동을 원하는 대학생은 기간 내 신청서와 재학(휴학)증명서 등을 전남스포츠크센터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하고, 오는 31일 선발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안군, 동절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무안군은 지난 14일 롯데아울렛

남약점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무안군과 롯데아울렛 남약점 임직원 및 민간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롯데아울렛 남약점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법 및 폭설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팸플릿을 배부하여 군민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특히, 외출 시 난방기구 점검, 내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모두가 참여해야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